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대표팀의 컨디션은 80% 수준. 남은 열흘간 총력을 다해 컨디션을 끌어올려야한다. 그것이 대표팀의 남은 숙제다. 22일 요코하마전에 등판한 양현종. 사진제공 | KBO

고척 5일장 ‘운명의 리허설’

〈5번의 평가전〉

WBC 개막 카운트다운…김인식호, 신의 한수를 찾아라

2017 WBC 서울라운드(A조) 공식 일정

※장소는 고척돔. ★=A조 1라운드 공식경기

날짜	시간	내용	날짜	시간	내용
2.24(금)	14:00~18:00	훈련 : 한국	3.4(토)	10:30~11:50	훈련 : 대만
2.25(토)	14:00~	평가전 : 한국 vs 쿠바		14:00~	연습경기 : 이스라엘 vs 상무
	19:00~21:00	훈련 : 호주		19:00~	연습경기 : 한국 vs 경찰
2.26(일)	14:00~	평가전 : 한국 vs 쿠바	3.5(일)	9:00~10:20	훈련 : 이스라엘
	19:00~21:00	훈련 : 호주		10:30~11:50	훈련 : 한국
2.27(월)	10:00~12:00	훈련 : 쿠바		14:00~	연습경기 : 대만 vs 경찰
	18:30~	평가전 : 홍익대 vs 호주		19:00~	연습경기 : 네덜란드 vs 상무
		※한국대표팀 휴식일	3.6(월)	10:30~12:00	훈련 : 대만
2.28(화)	11:00~13:00	훈련 : 쿠바		12:30~14:00	훈련 : 네덜란드
	18:30~	평가전 : 호주 vs 한국		18:30~	★Game1 : 이스라엘 vs 한국
3.1(수)	11:00~12:30	훈련 : 호주	3.7(화)	12:00~	★Game2 : 이스라엘 vs 대만
	13:00~14:30	훈련 : 한국		18:30~	★Game3 : 한국 vs 네덜란드
	14:30~	4개국 감독 공식 기자회견	3.8(수)	10:30~12:00	훈련 : 이스라엘
	15:00~16:30	훈련 : 네덜란드		12:30~14:00	훈련 : 한국
3.2(목)	9:00~10:20	훈련 : 대만		18:30~	★Game4 : 대만 vs 네덜란드
	10:30~11:50	훈련 : 네덜란드	3.9(목)	12:00~	★Game5 : 네덜란드 vs 이스라엘
	14:00~	연습경기 : 이스라엘 vs 경찰		18:30~	★Game6 : 한국 vs 대만
	19:00~	연습경기 : 한국 vs 상무	3.10(금)	11:30~13:00	훈련 : 조1위팀
3.3(금)	9:00~10:20	훈련 : 이스라엘		13:30~15:00	훈련 : 조2위팀(플레이오프 없을 시)
	10:30~11:50	훈련 : 한국		16:30	조1위팀 도쿄 출발
	14:00~	연습경기 : 네덜란드 vs 상무		18:00~	★2-3위 결정 플레이오프(필요시)
	19:00~	연습경기 : 대만 vs 경찰		18:30	조2위팀 도쿄 출발
3.4(토)	9:00~10:20	훈련 : 네덜란드		23:30	조2위팀 도쿄 출발(플레이오프 개최시)

전후 마친 대표팀 실전감각 찾기
투수들은 구속·공인구 적응 숙제
고척 평가전서 필승 라인업 완성

“80%는 올라왔다. 앞으로 100% 맞춰야한다.”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에게 남은 시간은 딱 열흘이다. 이 기간 안에 펼쳐지는 5차례 평가전(연습경기 2경기 포함)에 ‘올인’해야 한다.

WBC 대표팀이 11일간의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마치고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표팀 김인식 감독은 귀국 직후 선수들의 컨디션에 대해 “전지훈련과 평가전 2경기를 하면서 감독으로서 느낀 것은 80% 정도 올라왔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열흘간 100% 맞춰야한다”고 밝혔다.
김 감독의 말처럼 대표팀 선수들은 아직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다. 실전 감각이 문제다.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 동안 일본프로야구팀인 요미우리(19일), 요코하마(22일)와 2차례 평가전을 치렀는데, 대표팀은 2패를 당했다. 요미우리전에서는 0-4로 완패했고, 요코하마

전에서도 2-3으로 역전패했다.
특히 타자들의 타격감이 문제다. 요미우리전에서는 4안타만 때렸는데 서건창, 양의지, 김재호, 김하성이 1안타씩을 합작했다. 요코하마전에서는 양의지의 2점홈런과 서건창의 중전안타로 단 2안타의 빈공으로 침묵했다.
기록만 놓고 보면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프로야구 선수들은 현 시점에서 당연히 실전 감각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김인식 감독도 그런 점을 잘 알기에 결과만 놓고 조급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2안타에 그친 요코하마전에서 보여준 타자들의 적응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감독은 “타격이 처음 구상

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요코하마전에서는 비록 안타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김태균 최형우 등이 잘 맞은 타구를 만들었다. 강한 타구로 라인드라이브를 쳤는데 잡힌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타자도 타자지만 결국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운드가 중요하다. 특히나 이번 대표팀은 역대 대회에 비해 객관적인 전력상 투수력이 부족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투수들은 남은 열흘 동안 구속 향상과 변화구 감각, 공인구 적응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대표팀은 앞으로 5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25일과 26일에는 쿠바와 2차례 평가전을 소

화하고, 28일에는 호주와 평가전을 한다. 그리고 3월 2일과 4일엔 각각 상무와 경찰야구단과 연습경기를 치른다.
WBC 서울라운드(A조) 개막전은 3월6일 이스라엘전이다. 김 감독은 “우선 1라운드를 통과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하는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첫 경기를 잘해야 그다음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인식호’는 남은 열흘간 5차례 평가전에서 실전 감각을 100% 끌어올리는 숙제를 풀 수 있을까. 만만찮은 ‘시간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대표팀이다. ▶관련기사 2면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뉴스디자인 | 김형조 기자

일촉즉발 남과 북, 영화야? 진짜야?

요인암살·미사일 문제 다룬 ‘강철비’
V.I.P·공작은 아시아 무대로한 첩보전
‘김정남 피살’로 영화의 사실감 증폭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의 파장이 증폭되는 가운데 영화계도 시신을 때지 않고 있다. 올해 부쩍 늘어난 남북한 소재 영화들과 뜰 수 없는 ‘실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소재 영화는 분단에 따른 갈등을 담아

내는 시도를 넘어 이제는 첩보전의 주요 소재로 확대되고 있다. 요인 암살은 물론 권력 전복 시도, 정보원들의 신분을 감춘 작전 등 소재를 담아내고 있다. 남북분단은 여전히 현실인데다 이번 김정남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영화 속 이야기가 한층 사실감을 더하고 있다.
북한 최고 권력자를 암살하는 내용은 현재 촬영에 한창인 영화 ‘강철비’(감독 양우석·제작 모팩엔알프레드)에 담긴다. 박도원과 정우성이 주연하는 영화는 북한에서 벌어진 쿠데타로 중상



영화 ‘V.I.P.’의 주인공 장동건(오른쪽)과 박훈정 감독. 사진제공 | 영화사 금열

을 입고 남한으로 넘어온 ‘1호’로 지칭되는 최고 권력자로 인해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에 더해 완고한 남한 정부와 대립, 미사일 발사 문제 등도

다룬다. 현재 북한을 둘러싼 실제 상황을 미리 예견한 듯한 스토리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정남이 피살된 곳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추정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마치 실제처럼 아시아를 무대로 벌어지는 첩보전을 그리는 작품도 있다. 장동건·김명민 주연 ‘V.I.P.’와 황정민과 이성민이 함께 하는 ‘공작’이다.
1월 촬영을 마치고 후반기작업에 한창인 ‘V.I.P.’(제작 영화사 금열)에는 장성택 등 북한 고위 권력자들의 실명이 그대로 등장한다. 영화는 북한 고위 인사의 아들이 탈북한 뒤 홍콩, 태국 등에서 벌어지는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로 지목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이를 쫓는 한국 국정원과 경찰, 미국 CIA 등이 한 데 얹히는 긴박한 첩보전이다. 연출자 박훈정 감독은 “권력기관 사이의 이해관계와 정치, 그로부터 발생되는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며 남북한 첩보전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윤종빈 감독의 신작 ‘공작’(제작 사나이픽처스)은 1월 말 촬영을 시작해 현재 대만 로케이션 중이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해개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잠입한 첩보원과 그를 둘러싼 권력층의 첩보전이 주요 내용. 실제 남북한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으로, 역시 현실성이 상당하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충간소음 **NO!** 악취 **NO!** 총상배관 시스템

정일테크(주)&와토스코리아(주)

2017 경향하우징페어
KOREA BUILD

대한민국건축기계설비종합
전시회 참가

2.22(수)~2.26(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5홀 B1-09

공사업 담당자 모집공고

■ 모집부문

- 미장방수 조적 공사업
- 기계설비 공사업
- 실내건축 공사업

■ 내용

- 지원자격: 각 분야 자격증 소지자
- 모집인원: 각 분야 0명
- 근무처: 인천 계양구 와토스센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032)563-3686(0번_안내)

총상배관 관련 자재들을 선보일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 032)563-3686(0번_안내) 와토스코리아(주) www.watos.com